



공맹(孔孟), 이타적 경제를 논하다.

「경제학의 철학적 논점」, 「동양고전철학」 강의페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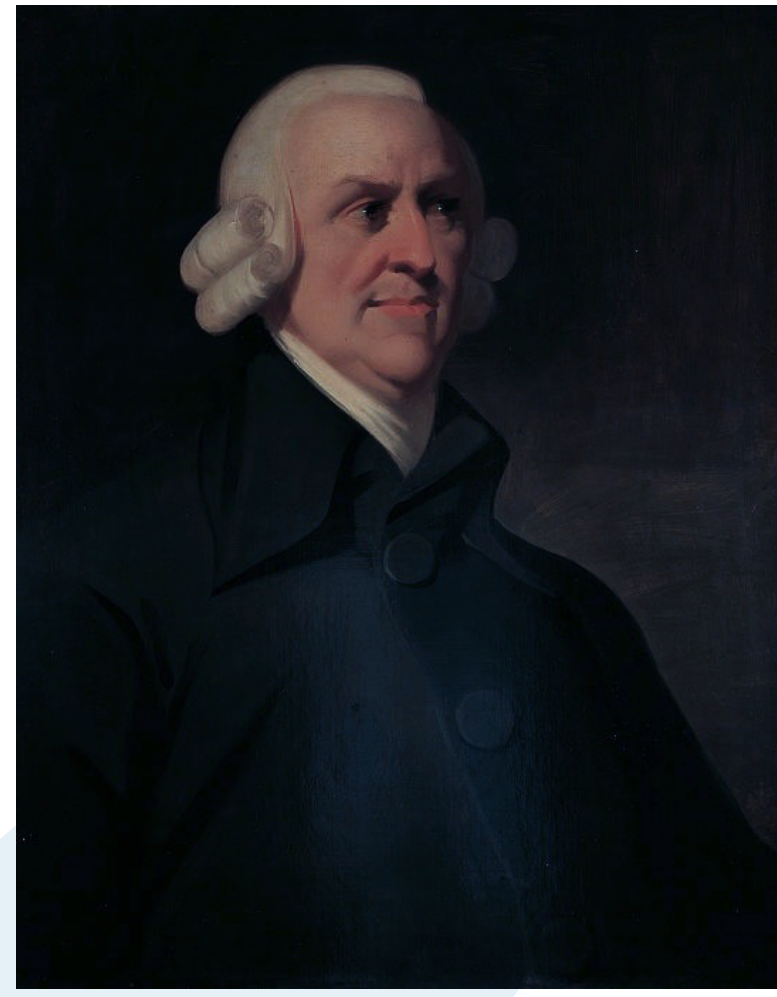
경제학과 4학년 200821264 임준형, 홍성기 교수님 지도

목적

흔히 유교사상은 동아시아의 뒤늦은 경제발전과 합리적인 의식과 제도를 가로막은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곤 한다. 혹자는 18세기 산업화를 이룩한 서양에 뒤처지게 된 원인으로 유가사상의 지나치게 복잡한 의례와 각종 의식들과 지나친 물질적 부보다는 정신적인 부를 강조하는 안빈낙도의 정신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는 경제 행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한발 더 나아가 '향산향심'이라는 독특한 사상을 통해 경제발전이 국가발전에 필요요소임을 말한다. 이를 통해 유가사상이 제안하는 경제사상은 오늘날의 주류경제학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유가사상이 오늘날 글로벌경제위기로 발현된 경제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길 원한다.

「경제학의 철학적 논점」에서의 강의페어링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이 취하는 경제학의 관점의 출발은 아담스미스로부터 시작한다. 흔히 <국부론>이 꼽히고 있지만 실제로 아담스미스의 경제관과 인간의 상업행위에 대한 철학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양고전철학」에서의 강의페어링

공자의 <논어>와 맹자의 <맹자>를 통해 두 유가사상가가 '경제'에 대해 갖는 관점과 생각을 살펴보고 이 관점에서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이 지니는 문제점을 평가한다.



강의페어링 융합 사례

'경제'는 인간이 태고로부터 생존을 위해 행해왔던 사회활동으로서 간단한 물물교환에서부터 오늘날의 유통업과 금융업 등의 첨단 경제행위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였다. 경제행위는 작게는 한 개인으로부터 넓게는 한 국가와 문화권에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서히 국가를 쪼먹는 경제위기가 싹트고 있었고 잘못된 경제정책과 불균등한 국가무역은 어느 국가의 빈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전 세계의 경제가 함께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다. 세계화는 경제문제를 개인과 일국의 문제를 넘어 전지구적인 위기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제위기를 헤쳐갈 해법을 동서양의 두 거장이 남긴 저작을 토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이 경제위기의 원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경제학의 토대인 '탐욕'의 인간관과 최초의 경제학자가 꿈꿨던 이상사회에 대한 아담스미스의 입장을 검토한다. 또한 아담스미스가 가정한 인간의 본성론을 받아들여 <국부론>으로 탄생한 경제학이 어떻게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로 유가사상의 대표자로 추앙 받는 공자와 맹자가 보는 인간본성론을 살펴본다. 아담스미스와는 전혀 다른 본성론에 기초하여 제시된 유가사상의 '경세제민'의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

셋째로 두 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아담스미스의 주류경제학 속에서 공맹사상의 경제관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더 나아가 최근 급부상 중인 사회적 기업과 유가사상의 경제관의 연결점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유가사상의 경제관이 실현 가능할지 생각해본다.

강의페어링 적용 가능 사례

본보고서는 유가사상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을 깨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현재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유가사상의 경제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유가사상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경제행위'와 더 넓게는 '인간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가 갖는 경제철학이 유가사상의 경제관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가사상의 경제관이 현 경제학에 던지는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기적 개인을 가정한 아담스미스와 이타적 개인을 지향한 유가사상의 인간관은 너무나 다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관과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 또한 필연적으로 상이하다. 경제발전과 경제학은 아담스미스의 이기적 개인을 가정하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성과 이타성은 인간의 다른 근원적인 본성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기적 개인을 가정한 경제학이 마침내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최근 경제학계에서 부상 중인 '행동경제학'이나 '자본주의 3.0'과 같은 연구들은 경제학의 근본이 되는 인간관과 경제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타적인 경제학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3000년 전 공자와 맹자는 인간의 이타적인 성향에 대해 주목하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제를 제시했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대안으로서 유가사상을 통해 더 발전적이며 현실적인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유가사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미상, 『논어(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2009. 맹자, 『맹자(孟子)』, 박경환 옮김, 홍익출판사, 2008.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박세일, 민경국 공역, 비봉출판사, 2009. 정태인,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2014.
이덕희, 『공자가 다시 쓴 자본주의 강의』, 센추리원, 2015. 도메 다쿠오,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우경복 역, 동아시아, 2014.